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7

▶ 28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웃자인으로 가는 길에 베디샤에서 행군을 멈춘다. 베디샤 사람들이 가네샤신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진압군은 축제를 방해하지 않고 나아간다. 드디어 웃자인 부근에서 멈추어 공격 시점을 조절한다.



아쇼까, 우빠굽따에게 공양 올리다

사마왓띠가 더욱더 우데나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마간디야는 한밤중에 별궁을 나와 숙부를 찾아갔다. 숙부를 만난 마간디야가 울면서 애원했다. 사마왓띠가 잠든 별궁에 불을 질러달라고 숙부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숙부는 마간디야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간디야의 청을 들어주겠다며 겨우 달래서 돌려보냈다.

며칠 뒤였다. 때를 엿보던 숙부는 우데나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심복하인을 시켜 사마왓띠 별궁에 불을 질러버렸다. 잠을 자고 있던 사마왓띠와 시녀 500명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모두 타죽었다. 그런데 사마왓띠와 꾸줏따라를 비롯한 시녀 500명은 당황하지 않고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의연하게 고통 없이 죽어갔다.

성민들은 불에 탄 시신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 왕궁에 돌아온 우데나왕은 분노했다. 누군가의 소행인지 짐작했지만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범인을 체포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범인의 자백도 필요했다. 우데나왕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마간디야 별궁으로 가서 그녀에게 물었다. "왕비의 말처럼 사마왓띠가 나를 해칠 것 같아 나는 항상 불안했소. 머잖아 사마왓띠를 붙잡아 처형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내 속마음을 간파하고 먼저 죽인 것 같소. 사마왓띠의 별궁에 불을 지른 사람이야말로 나를 위한 사람이니 큰 상을 내려야겠소." "왕이시여,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저이옵니다."

마간디야가 우데나왕의 속마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대답했다. 마간디야에게 직접 자백을 들은 우데나왕은 거짓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왕비는 물론이고 숙부와 친척 모두에게 상을 내리겠소. 지금 즉시 수레를 보내겠으니 왕궁으로 들어오시오." 왕궁으로 돌아간 우데나왕은 군사들을 시켜 성문 안쪽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게 했다. 구덩이를 다 팠을 무렵이었다. 마간디야와 그녀의 숙부 등 친척 모두가 크고 작은 수레를 타고 성문을 향해 왔다. 마간디야는 상을 받을 생각에 들떠서 화려한 수레를 타고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수문장이 성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던 수레들이 깊은 구덩이로 곤두박질쳤다. 우데나왕이 군사들에게 큰소리로 명령했다.

"구덩이에 흙을 채워라!"

마간디야와 그녀의 숙부, 그리고 친척들이 살기 위해 흙속에서 힘껏 머리를 내밀었다. 마간디야가 우데나왕을 올려다보고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우데나왕이 칼을 빼어들고 소리쳤다.

"네가 사마왓띠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느냐! 너로 인해 착한 꾸줏따라도 숯덩이처럼 타 죽었지 않았느냐!"

우데나왕은 구덩이 위에 짚단을 던지게 한 뒤 불을 질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마간디야와 그녀의 친척들이 불길에 타 죽었다. 우데나왕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소와 말이 끄는 쟁기로 구덩이를 수십 번이나 갈아엎었다. 시신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누구의 살점과 뼈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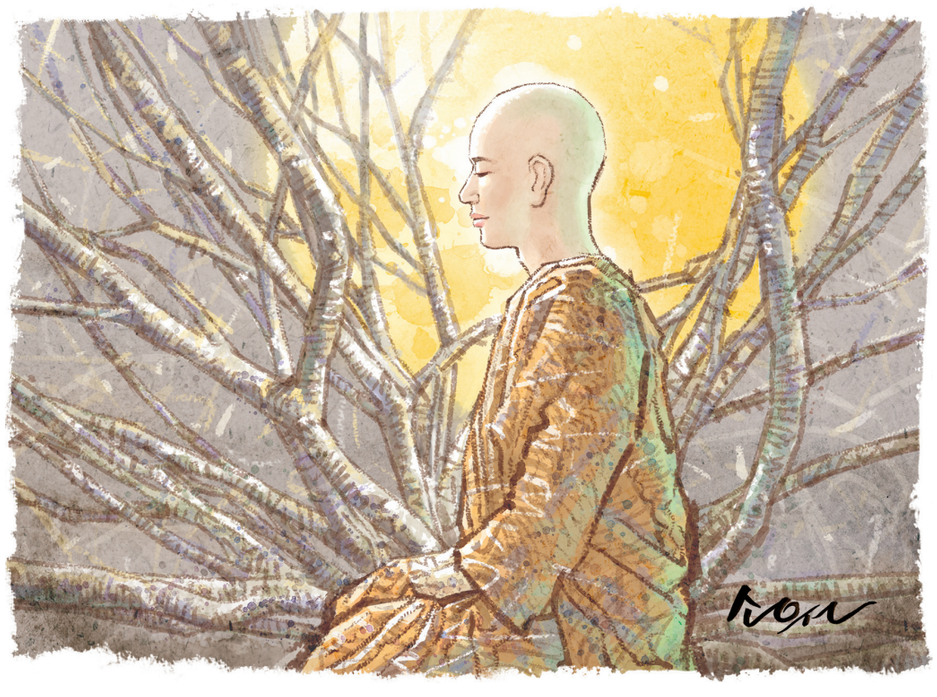
그제야 아쇼까는 어깨와 목덜미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아쇼까는 가볍게 진저리를 쳤다. 야무나강이 피어올린 안개가 꾸꾸따라마 사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달빛이 투과하는 안개가 연기처럼 푸르스름했다. 아쇼까가 우빠굽따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오시오. 공양을 올리고 싶소."

"왕자님이시여, 고맙습니다. 고시따라마 사원도 붓다의 그림자가 어린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붓다의 이야기는 내일 더 듣기로 하겠소."

선봉대장이 말을 끌고 아쇼까에게 다가왔다. 말도 안개의 냉기 때문인지 갈기를 흔들고는 푸르르 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말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면서 허연 입김을 내품었다. 아쇼까와 선봉대장은 말을 타고 꾸꾸따라마 사원을 떠났다. 우빠굽따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얀나무 아래 서서 합장을 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의 초대를 받고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았다. 반얀나무 둥치에서 무념무상의 삼매로 밤을 새웠다. 반얀나무 이파리에 맺혔던 밤이슬이 정수리에 서너 방울 떨어지고 나서야 새벽의 시간을 자각했다. 우빠굽따는 무명 숄을 어깨에 두른 뒤, 야무나강으로 내려가 찬 강물로 양치하고 세수를 했다.

새벽정진을 마친 우빠굽따는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향했다. 짙은 안개는 들판을 두꺼운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우빠굽따는 맨발로 걷다가 야무나강으로 흘러드는 도랑물에 발을 씻었다. 그 사이에 해가 떠올랐는지 햇살이 광활한 들판에 부챗살처럼 퍼졌다. 아쇼까의 전령이 성문 밖까지 나와 우빠굽따를 맞이했다.

"부왕께서 사문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고맙소."

꼬삼비성은 저잣거리 말고는 조용했다. 저잣거리는 상인들로 붐볐다. 어부들은 밤새 잡은 고기들을 어물전 상인과 흥정했고, 식당 주방화덕에서는 요리사가 짜파티를 부지런히 구웠는데, 밀가루가 타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과일가게 주인은 망고와 바나나를 노상좌판으로 옮기느라고 분주했다. 우빠굽따는 전령을 앞세우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걸어갔다. 아쇼까가 하룻밤을 보낸 길쭉한 군막은 야무나강이 보이는 사원 안쪽에 임시로 가설돼 있었다. 아쇼까가 군막 밖에 있더니 우빠굽따에게 다가왔다.

"사문이시여, 어서 오시오. 어젯밤은 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소."

"소승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도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사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소. 꼬삼비를 떠나기 전에 더 들려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듣겠소."

"과찬입니다만 여기 고시따라마 사원은 부처님께서 직접 머무셨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소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저기 뜰에 공양을 마련해 놓았소. 가시지요."

"소승에게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자님께서 마음을 내셨으니 기꺼이 받겠습니다."

식탁은 뜰 한쪽에 이미 옮겨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주식으로 볶은밥과 짜파티가 큰 접시에 각각 놓여 있었고, 빵에 찍어 먹는 커리와 달은 작고 오목한 접시에 담겨 있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로 망고와 바나나, 사과, 포도 등이 대바구니에 가득 쌓여 있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우빠굽따를 생각해서인지 공작요리나 닭요리, 생선구이 등은 식탁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아쇼까가 어젯밤에 요리사를 불러 우빠굽따를 위한 식단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우빠굽따는 공양을 하기 전에 아쇼까를 위해 기도했다. 붓다의 가피로 무기를 쓰지 않고도 적을 평화롭게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기도였다. 우빠굽따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은 아쇼까는 대단히 만족했다.

"사문의 기도가 옳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군주야말로 위대한 왕이오."

"왕자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소승이 공양을 받았으니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빠굽따는 잠시 침묵했다. 아쇼까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인연인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아쇼까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사문이여, 어서 말하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형상 없는 무기입니다."

"하하하. 부처님의 가르침이 칼보다 위대할 수는 없소. 마우리아국을 세운 것은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의 칼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칼이었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소. 내 말이 틀렸소?"

우빠굽따는 또 다시 침묵했다. 아쇼까는 아직 불법을 받아들일 인연이 아니었다. 아쇼까가 배가 고프다는 듯 짜파띠 두 장을 들더니 한 장을 우빠굽따에게 권했다. 우빠굽따가 다소 의기소침해지자, 그가 자신만만해할 화제로 돌렸다.

"부처님이 이곳 고시따라마 사원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소?"

"식사를 드시는데 이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괜찮아요. 계속 하시오."

"부처님이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오셨을 때 이곳에는 두 비구가 각각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비구는 경을 가르치는 강사였고, 또 한 비구는 계를 가르치는 율사였다. 어느 날 강사 비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사소한 계율을 범했다. 계율에 따르면 화장실을 사용한 비구는 다음 비구를 위해 화장실 변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통을 거꾸로 해놓고 나와야 했다. 그런데 강사 비구는 밖의 일이 급한 나머지 말끔하게 뒤처리를 하지 못했다. 우연하게도 바로 뒤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사람은 율사 비구였다.

잠시 후 율사 비구가 강사 비구에게 "이것이 계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강사 비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했다. 그러자 율사 비구가 "행위 자체는 계율에 어긋납니다만,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율사 비구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발설함으로 해서 이 일이 강사와 율사를 따르는 제자들 간에 큰 논박으로 번졌다. 이 같은 서로의 언쟁과 비난은 붓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붓다가 나서서 서로 화해하도록 권유했지만 다툼은 잦아들지 않았다. 마침내 붓다는 충격적인 방편을 썼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신 뒤 홀로 빨릴레이까 숲속으로 들어가셔 버렸습니다. 아난다 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고시따라마 사원을 떠나셨겠습니까?"

코삼비 재가신자들도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붓다를 뵈러 갔다가 계시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한 재가신자가 비구들에게 물었다. 어느 비구가 "부처님은 숲속에 홀로 계십니다."하고 궁색하게 말했다. 그러자 재가신자가 "왜 거기에 홀로 계십니까?" 하고 캐물었다. 결국 비구들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가신자들은 비구들에게 실망하여 탁발을 나와도 음식공양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곤란을 겪게 된 비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화해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재가신자들은 두 가지를 결의했다. 비구들이 숲속에 계신 붓다에게 가서 참회할 것과 붓다를 다시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모셔올 것을 요구했다. 비구들은 신자들의 요구로 아난다를 따라서 빨릴레이까 숲속에 계신 붓다에게 가서 참회했다. 그러자 붓다가 비구들을 용서하며 '다툼을 일으키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며, 화해를 한다면 그 공덕이 자신의 미래를 훌륭하게 만들게 된다.' 고 설법했다. 그러면서 붓다는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그 왕을 용서할 것을 권한 브라흐마닷따왕을 예로 들면서 게송을 읊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목숨에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다툼을 계속한다. 그러나 현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아 모든 다툼을 쉬어버린다.

아난다를 따라온 비구들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는 눈물이었다. 재가신자들의 요구로 하게 된 참회였다. 아쇼까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우빠굽따의 걱정과 달리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계속〉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